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Christ the King)

요한복음(Gospel of John) 18:33-38 요한계시록(Revelation) 1:4-8

Nov 25, 2018

과거에는 모든 나라들을 왕이 다스렸습니다. 미국과 같이 한번도 왕이 아예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역사가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긴 나라는 한결 같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왕의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사람을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정신이 우세해지고, 권력이 분립되면서 왕의 제도도 사라져갔습니다.

왕이 절대권력을 갖기에 왕이 부패하면 백성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모국 한국은 역사적으로 훌륭한 왕을 많이 보유했습니다. 세종 대왕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영국은 아직도 왕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천황이란 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왕제도는 더 이상 옛날의 왕과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왕은 명목상 군력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실제적인 군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인 절대 권력의 왕 제도가 무너지며, 점점 권력의 분산되었습니다. 삼권분립이 되어 재판권은 사법부가 통치권은 행정부가 갖고, 법을 만드는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회도 국민의 눈치를 보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_그러나 왕 제도가 없어졌다고 실제적으로 왕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왕의 타이틀과 제도만 없어졌지, 사람들은 아직도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최고로 귀중하게 여기고 추구하는게 그게 왕입니다.** 특히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가짜 왕을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돈이 너의 왕이야, 권력이 너의 왕이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앞에는 두 왕 중의 하나를 선택할 결정이 늘 놓여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왕을 섬길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늘 놓여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Christ the King 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 달력은 1 월 부터 시작하지만, 교회의 1 년 달력은 12 월 첫주 대강절 즉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주일 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교회의 마지막 주일이며 교회는 이 주간을 Christ the King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라 부릅니다. 이 날은 통해 왕이신 예수님과 그 분의 나라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Christ the King 주일 유래는 1925 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 1 차 대전이 끝난 직후 유럽사회는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만이 최고라는 민족주의가 들끓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최고야, 우리 민족이 최고야라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과 인종차별하는 일에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1934 년 독일의 나치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 혈통이 최고, 우리가 최고 민족이다 주장했습니다. 가장 우수한 자기네들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혈통을 더럽히는 유대인들은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며, 6 백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민족주의와 인종차별과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가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로마교회와는 다르게 서방교회의 방식대로 이런 이 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왕은 지배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고자 이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돌보며,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죽는 왕입니다.**

본문을 통해 보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왕은 어느 누구에게도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왕은 최고의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판을 받길 위해 빌라도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32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신 자체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인간 법정에서 끌려가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누구에게다 재판이 보장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재판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 보장된 것이 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 스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으로 고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으로 고발한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고했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개를 오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늘 먹고 사는 것을 걱정했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시도 합니다. 요한복음 6 장 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여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 오셨을 때도 왕으로 삼고 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유대지도자에게 잡혀가고, 빌라도에게 잡혀가자, 예수님을 죽이라는 함성을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력하게 잡혀가는 왕은 그들이 꿈꾸는 왕이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왕은 당장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에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줄 수 있는 왕이 었습니다.

유대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 유대의 왕이란 선언한 것 처럼 고발합니다.

유대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력과 세력을 방해하는 인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수 많은 군중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직접 죽이는 것을 피합니다. 대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어갑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방인이자 원수인 빌라도를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 불결한 자의 법정에 넘긴 것입니다.(18:31). 또한

그들은 죄 없는 예수 대신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18:40).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고자, 성전을 모독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자신들의 유일한 왕이라고 까지 말합니다.(19:15). 그러면서 이방인의 부정함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법정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심문한 로마 총독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A.D 26 년 티베리우스 황제로 부터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어두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빌라도는 10 년 동안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외골수적인 종교 행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과 일반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과 잘 지내야만 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가 무죄인 것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유대 지도자들의 주장도 만족시키고, 예수님이 무죄라는 진실도 관철시킬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유월절 관례를 동원해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을 합니다., 채찍질을 가하는 형벌 정도로 예수를 놓아줄 명분도 만들어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요구는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들의 강력한 요구를 따라갑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인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군중의 마음, 즉 '민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필로는 빌라도를 '완고하고 부패한데다가 잔인한 성격'을 가진 인물로 묘사합니다. 당시 로마제국이 가장 싫어하던 것 중 하나가 '민중봉기'였습니다. 만일, 군중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을 자극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33 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는 첫 질문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셔야 할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되물으십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유대인들)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내가 왕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냐, 아니면 빌라도 스스로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고 받아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유대언어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어 유대언어 아니므로 예수님이 진정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기는 이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6 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고 행하신 일들을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까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던 빌라도가 이제 네가 왕이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세상에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나라, 즉 하늘로 부터 오는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로마 황제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모든 백성이 자신을 신으로 여기도록 했습니다. 자기 신상을 만들어 절하며 숭배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끌려간 신자들에게 로마심문자들은 질문했습니다. '누가 너의 왕이냐?/'

우리는 "누가 너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왕을 섬긴다고 감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다른 무엇인가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선택을 합니다.**

시편 47 편 2 절 "지존하신 여호와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7 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8 절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우리교회의 왕이시며, 우리 민족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 교회 역사, 민족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왕이 이끌어갑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그분의 뜻에 깊이 귀기울여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철저히 그분의 뜻과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을 진짜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나는 그분의 왕임을 인정합니까? 세상 어떤 누구보다, 대통령 보다, 어느누구보다 그분이 만왕의 왕임을 인정합니까?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존경하며 살아갑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왕의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물음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네가 왕이냐'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셨다/ 빌라도와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로마 제국이나 유대 민족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만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서 이 땅에 계신 내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속히 벗어나야 할 곳' 정도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생각에 빠져서 '내 나라'와 '이 세상'을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더러운 곳이며, 의미 없는 곳이라고 오해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은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전혀 관계없는 나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들어와 있으나, 그 가치와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속에 깊이 들어와 있으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버려지고, 저주 받고 무의미한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 찾아온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마 5:13-14)”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충실히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존재가 신자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그 가치와 방식에서 전혀 다릅니다.유대인들은 늘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 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이것 보다 더 중요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품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속한’ 로마는 초강대국으로서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꿈꾸는 나라나, 로마인이 생각하는 나라나 모두가 무력에 기초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군사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존합니다. 폭력으로 무너 뜨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를 짓밟고 서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품고 섬기는 커져가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가 최고야 하고 자기끼리만
뭉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다른 민족을 품은 나라입니다. 부족한 사람도 품고, 죄인도
품는 나라입니다.**

마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세상 제국은 언젠가 다 시들고 무너지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단 한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백성이 신자입니다. 이 나라를 생각하고
꿈꾸고 세우고 퍼뜨리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리

예수님이 왕이라면 그 백성은 누구입니까? 왕이 있으면 반드시 백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는 자신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온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국의 백성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진리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그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퍼뜨리기 위해 쓰임받은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우리는 주님의 선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가 왕이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보다 더 중요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 진리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헌금기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시닌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깨어 있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환난과 환경의 장애물에 묶여서 한쉬며, 절망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점점 커지고 분명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 하시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저희 교회 속한 가정과 자녀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 어둡고 험한 시대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과 더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 고통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난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될 수없는 질병조차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 저희와 사업과 직장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믿음으로 오투기 처럼 강하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